

종책모임 '기지개'

일승회 새회장 항적스님 등 집행부 선출

회협회 종도설문으로 종책수립키로

승가회 인터넷언론 불교닷컴 오픈

조계종 중앙종회내 종책모임인 '일승회' '회협회' '미래를여는승가회' 등은 최근 각 정파별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제32대 지관 총무원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선거법 개정과 동국대 이사장 선거,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등 그 어느해보다 굵직한 사안이 많아 이들 각 계파의 활동에 종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일승회는 1월 19일 오후 첫 총회를 열고 회장에 중앙종회의원 항적스님, 부회장에 지만·장적·원달스님을 선출했다. 장적 스님은 종책 위원장 겸직, 이날 총회에는 일승회 소속 종회의원 24명과 고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회협회**(회장 성직)는 18일 회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종책과제 수립 등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회협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 오는 3월까지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단현안문제에 대한 종책과제

수립을 논의했다. 설문조사는 1월 21일까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종정기관의원, 중앙종회의원, 교계 종사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3월 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종도공청회를 거쳐 3월 27일까지 '종책10개년 계획'을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회장 성직 스님은 "미래지향적인 종단발전과 사회갈등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된 화합공동체결사인 화협회는 종단의 합리적 사고, 공평한 인사운영, 투명한 재정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를여는승가회(임시공동대표 보선 장주 설승)도 17일 비공개 종책 위원회의를 열고 종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보림·금강회 소속 의원과 본사 주지스님 등 중진스님 13명은 이날 종단 현안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1월 20일 인터넷 언론 불교닷컴 창간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미래를 여는 승가회의 창립일정을 2월 초로 결정했다. **조용수** 기자

"폭력근절에 관심을"

천 법무, 지관스님 예방

천정배 법무장관은 1월 17일 오전 11시30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해 올해 법무부가 추진 중인 4대 폭력근절을 위한 불교계의 지원을 부탁했다.

천정배 장관은 "4대 폭력근절(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학교폭력)을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비폭력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교와 스님들이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사회부장 지관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호법부장 도진스님, 신명 우리당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배석했다.

조용수 기자

"재해성금 감사합니다"

뉴올리언즈한인회장 지관스님 예방



태풍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미국 뉴올리언즈 한인회 이장호 회장은 1월 19일 오후 4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계종은 지난 1월 11일 사회부장 지관스님을 단장으로 '카트리나 재해성금전달단'을 뉴올리언스 현지로 급파해 구호성금 14만 776달러(한화 1억3996만원)를 '카트리나 한인피해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피해교민을 위로했다.

이장호 회장은 "3500억불(350조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계종이 큰 도움을 주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대형불사보다 안정속 내실

조계종 신년사업, '교구본사 행정력 강화' 주목

지관 스님이 19일 밝힌 조계종의 올해 중무의 기조는 '수행과 포교' '안정과 중흥'이었다. 외형적인 대형불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안정속의 내실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11월 출범, 올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는 제32대 총무원 신년사업계획으로 보기에는 다소 맞닿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만큼 종단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반증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는다.

올해 추진될 10대 핵심사업과 21개 주요사업 가운데 주목할 것은 중앙종무행정의 교구사업이다. 예를 들어 가·나급 사찰을 제외한다. 라급 사찰은 본사주지가 직접 말사 주지의 임명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교구별로 행정체계의 준비수준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교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공사비과다 등으로 현재 소송중인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은 제반 문제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신계사 복원불사는 산신각과 만세루, 요사채 공사를 끝내고 현재 마무리 단계다. 올해는 대웅보전을 비롯, 산신각과 만세루, 요사채의 단청불사를 추진하는 한편, 총 7개동의 건물(극락전, 축성전 등)을 복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포교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수도권단위 공동사업으로 수도권지역 사찰 주지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하는 수도권포교전진대회 연합법회 등을 준비 중이다. 단순한 신도교화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문화를 순화시키는 포교전략을 펼친다.

더불어 해외특별 교구 신설을 위한 준비작업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간다. 미주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지에 한국 절들이 총무원과 연결 고리를 갖도록 제도적 준비를 서두른다. 연 통사찰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종단차원의 대책마련과 템플스테이 활성화한다. 또 조계종의 간화선을 수행 종지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2006 주요사업	
사업	사업명
핵심사업	중앙종무행정 교구사업 여건 확보 수익사업 관리 및 지원강화와 신규사업 개발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스리랑카 조계종복합문화원 건립 승가교육제도 개선안 시행여건 준비 간화선 대중화 방안 연구 지역포교 활성화 기반 조성 불교사회복지제도 개선안 통한 종단 사회복지 전달 체계 확립 전통불교문화유산지원 센터 건립
	주요사업

"더이상 갈등은 곤란..."

중진스님 28명 황박사관련 성명 발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해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을 비롯한 중진 스님 28명은 1월 17일 최근 황우석 사태와 관련한 불교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일간지와 교계신문에 각각 발표했다.

이전광고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 성명은 객관적인 검찰수사와, 국민들은 차분한 대처로 우리사회가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스님들은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의 과정이 자기 성찰 없이 너무 양극

화로 치달거나 소모적에 치닫는데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히고 "서울대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명징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혹은 증폭되고 여전히 모종의 '음모론'들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황 박사는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니, 백의종군의 과학자로 돌아가 과학적 성과를 내는 것만이 진정한 참가 될 것"이라며 황 박사가 연기질로 돌아 갈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더 이상 과

학계 내부의 분열과 국가적·경제적·정치적·종교적 갈등으로 비쳐지는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휘둘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수** 기자

인터넷 카페 '황지불' 개설

한 인터넷포털에서는 '황우석 지키기 불자모임(cafе.daum.net/buljahnw, 이하 황지불)'이 1월 14일 개설됐다. 황지불은 창립 취지문에 "황지불은 불순한 배후세력과 어떤 음모로부터도 황 박사를 외호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개설 일주일여 만에 회원수 800명을 돌파한 황지불은 현재 황 박사의 연구 재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1寺 1 현수막 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익순** 기자

경인방송 사업자선정 관련

조계종 입장 밝힌적 없어

조계종 기획실장 동선 스님은 1월 20일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 마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과 불교방송 사장 등이 기독교방송의 경인방송 사업자로 참여를 문체 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컨소시엄의 행태에 유감을 표시했다.

동선 스님은 "이번 성명을 통해 일부 컨소시엄 업체 관계자들이 마치 불교계가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호도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이 투명한 방법과 원칙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동국대 백상원에

종단지원 요청

석림동문회(회장 법타·은해사 주지)가 동국대 비구 기숙사인 백상원과 비구 기숙사인 해광사 문제 해결을 위해 종단에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석림동문회는 1월 18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학교로 토지를 넘겨주면 동문회가 종단과 학교의 도움을 받아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망실토지 5만평 되찾아

봉선사, 1년간 소송결과

망실재산 환수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월안)는 지난 1년간 분말사와 관련된 70필지 10만여 평에 대한 망실재산(유류재산 포함) 소송을 1월 19일 5천만 원 상당, 봉은사 2필지(6천만 원 상당)의 망실재산을 발견하여 총무원 재무부와 해당 사찰에도 통보하기도 했다. **박익순** 기자

관람료위원회에 범여스님

부위원장에 현응스님

조계종 관람료위원회 새 위원장에 선운사 주지 범여 스님(사진)이, 부위원장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은 1월 18일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06년 관람료 사찰 전체 주지회의'를 열고 신임 관람료 위원 15명을 선출했다. 전체 72개의 관람료 사찰 중 53곳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



서 신임 위원에는 범여, 현응 스님 외에 신흥사 주지 오현, 월정사 주지 정년, 법주사 주지 도공, 마곡사 주지 진각, 불국사 주지 종상, 금산사 주지 원해, 백양사 주지 두백, 화엄사 주지 종삼, 도갑사 주지 월우, 동학사 주지 요명 스님 등이 선출됐다. 재무부장 정만,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임기는 2년. **유철주** 기자

포항시장 지관스님 방문 "스님들께 잘못 빌었다"

2004년 '홀리클럽'에서의 종교편향 발언으로 문제를 빚었던 장장식 포항시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정 시장은 최근 5월 30일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한 상태다. 정 시장은 "포항이 배출한 큰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 무렵 마을에서 축하 플래카드를 내 걸었다"며 포항 불교의 각별한 인연

을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공인으로서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대덕 스님들과 불자들 만나 잘못을 받고 오해를 많이 풀었다"고 밝혔다. 최근 정 시장은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올해 초부터 녹원 스님·지성 스님을 찾는 등 경북지역 주요 사찰들을 돌며 불교계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마루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산하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불교의식범음·범패·작법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제, 천도제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매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제·천도제·장엄 및 계사 준비등 전과정

2학기 작법·무용과정
나비춤,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바라춤-요잡마라, 관용계마라, 천수마라, 사다라나마라

강사 박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부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인천수륙재보유자

■ 개강일시 : 2006년 3월 7일(화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주2회)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6년 1월 ~ 2006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대학은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사단법인 인혜전통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